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향한 사단의 세력은 더욱 팽배해지지만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저져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재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3호 2013년 7월 2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공립교 기도열풍, 미국사회 다시 깨운다!

CMS, 금지 50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기도와 신앙표현현장 소개

연방법인 '결혼수호법(DOMA)'의 위헌 판정과 이에 따른 동성결혼 인정 등으로 미국 사회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는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드높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진보적, 세속적 세력을 등에 업고, '평등'이란 이름으로 전통적 가치를 가차 없이 붕괴시켜 깨닫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꺼릴 것 없이 기도하는 등 50년 전에 사라진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신앙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MS)지는 최근 사법부에 의해 50년 전에 공립학교에서의 기도가 금지된 후, 오히려 공공연하게 기도와 성경공부 등 신앙의 적극적인

인 표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이 현상이 한 지역에만 편중되거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미전역에서 일고 있다고 커버스토리로 보도했다. 따라서 1, 2부로 나눠 다시금 미국 사회를 소리 없이 깨우고 있는 기도의 현장을 보도한다(School prayer: 50 years after the ban, God and faith more present than ever: School prayer was banned by the US Supreme Court 50 years ago, but there is probably more presence of religion in public school environments- through club ministries, classes, after-school and interfaith programs, and faith-based services- than ever



미국 소도시 공립학교내에서 기도모임이 재개되고 있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램을 지원하는 단체(The Religious Freedom Education Project) 회장, 하인스(Charles Haynes)는 지난 반세기를 회고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과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며, 학생들도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달라진 모습을 말해준다.

아직까지 공립학교에서 부활한 기도와 종교 표현 현상을 누구도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기도와 종교가 다시금 만개하고 있다는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 50년 전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든 판결 후에 많은 "학생 사역단체들"이 다시 기도가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수 십만의 중고등학생들과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에 집중적인 사역을 고등학교 대상으로 전개해 현재 1,200개 학교(대부분이 공립학교)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종교적 내용이 담긴 교육은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 때문에 그만큼 논란도 많은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은 주일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3,200여개 공립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통계로 굿뉴스클럽에 가입한 학생 수는 17,000명으로 안정세를 누리고 있다.

- 1990년 텍사스에서, 학교 국기 게양대에서 10명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기도로 시작한 "See You at the Pole"운동은 가히 폭발적인 힘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하여 미전역에서 9월 지정된 날짜에 맞춰 1-2백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정규 학교시간 시작 전에 모이고 있을 정도이다.

- 정식적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경공부 그룹들은 점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공부가 캠퍼스에서, 아니면 커피숍이나 개인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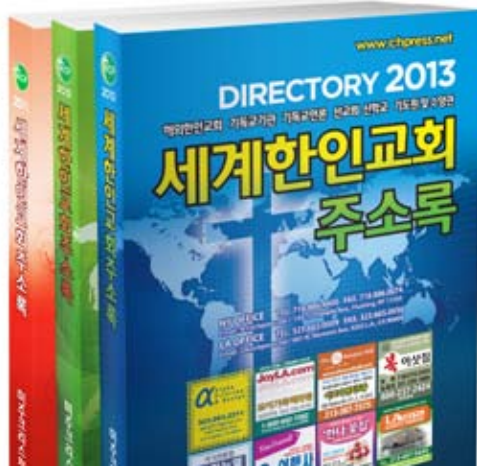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의 부활, 즉 신앙의 재등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교육전문잡지(Religion & Education) 편집장 마이크 와고너는 "만약에 공립학교가 사람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면, 다양한 형태들의 종교들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나 신앙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짚어준다.

(2면으로 계속)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newlifeone.com

창립 7주년 감사부흥집회

벌써 저희 새생명선교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감사부흥회

2013년 8월 9일(금)(오후 7:00)
2013년 8월 10일(토)(오전 7:00)
2013년 8월 10일(토)(오후 7:00)
2013년 8월 11일(주일)(오전 11:00)

* 부흥회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VBS)가 개최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담임목사 김만수



강사 : 정준성 목사

든든한교회 부목사
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
Regent College,
남미개혁장로회신학대학원
Franz Liszt Conservatory

새생명선교교회 New Life Mission Church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818)539-0123, (818) 952-2449



시론

언어의 품격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미국의 유명한 앵커 ‘데보라 노빌’은 그의 저서 “Respect”에서 품격 있는 리더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다. 품격 있는 리더는, “창조적 논쟁을 즐긴다, 타인의 단점을 들추기보다 장점을 활용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직원을 믿는다, 스스로 갈고 닦는다.”

“품격”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라 했다. 품격을 뜻하는 영어 단어 dignity의 라틴어 어원은 dignitas로 “높은 정치적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따른 도덕적 품성의 소유를 가리킨다”라 정의했다.

품격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잘 반영해준다. 특히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떤 자인지 짐작이 간다.

최근 한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을 보았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귀태” 즉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라든지,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이란 호칭을 가법계 사용하고, 전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 선거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듯 한 인상을 풍기는 “대선 불복성” 발언을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여기자들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됐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안타까움 내지는 안쓰러움을 느낀다.

며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내 기독교 지도자들 28명과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 한다. “목사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에서 막말하는 일이 없도록 설교해 달라... 막말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고 청년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사회를 정화하는데 목사님들이 힘써 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주 오래 전 Atlanta Journal이란 잡지에 Morgan Blake란 사람이 아주 인상 깊은 글을 썼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종락” 그는 허의 파괴력과 그 피해에 대해 말한 것이다.

차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모두 언어를 통해 믿는 자로서의 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나아가 성령에 감동된 언어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을 소망한다. 그리하여 가족 간에도,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끼리도, 나아가 사회전반에 걸쳐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인해 감동과 행복이 곳곳에 넘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휴가철 낮은 예배출석률 ‘이렇게’ 대처하라!

UMC, 여름 휴가, 방학.... 예배참석 활성화 방안 제시

매년 있는 일이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교회 문지방을 드나드는 발걸음들은 줄어든다. 아이들 방학과 휴가를 떠나는 가족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름 동안 교회 출석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없어지지 않는다. 도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가 발표한 여름철 예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본다.

1. 주일 저녁예배를 고려해 본다.

이른 아침 애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교회에 올 준비를 시키기란 쉽지 않다. 여름철 활동들이 대부분 늦은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시작하기에 늦은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낮 시간 활동으로 바쁘고, 외부에 다녀오는 이들을 위해 여름철에는 초저녁 예배시간을 따로 마련해 본다. 이 예배는 가족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한다. 빠른 템포의 음악을 사용한다.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사용 해 본다. 예배 후에는 음식을 각자 가져와 저녁을 먹으며 친교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회 교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전단지 배포한다.

캠프나 여름 성경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곳에 웹 주소를 알려준다. 유튜브, 페이스북, 교회 웹사이트에 이전에 있었던 캠프나 여름 성경학교 때의 동영상들을 올린다.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리는 간단한 방



근처에 자매교회가 있는가? 평소보다 출석이 낮은 기간 동안 양쪽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여름캠프, 성경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여름휴가로 떠나는 스텝과 교회 지도자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 냉방비와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다.

6. 다른 이들과 휴가를 공유한다.

휴가를 떠나는 교인들이 휴가지 근처에서 교단이나 지역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름철이 끝날 무렵 하루 밤 휴가의 밤을 열어 모든 교인들에게 열린다.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가족사진들을 가져오게 한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줄 수 있도록 미리 교인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부

스티브 라인홀드스, 릭 워렌 목사 등 ‘다이어트 운동’ 사역화

건강한 몸이 신앙 가늠척도로...경건의 ‘모양’만 주장 경계

2.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게 한다.

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열어 아이들과 부모들, 특별히 탁아시설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경을 쓰도록 한다. 캠프는 단순하게 한다. 적은 비용이나 무료로 제공한다. 가능하면 장학금도 지급한다. 교회에서 캠프를 열고 간단한 미술과 공작 시간, 야외 스포츠, 물론 성경 공부 시간도 갖는다.

최대한으로 참여도를 높이려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와 여름성경학교를 개설한다. 지역사회 웹사이트는 물론 지역 가족중심 잡지와 지역 신문에도 행사일정을 올린다. 지역기관과 다른 교

회를 참고해 본다. 아이들 사진이나 비디오를 올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해야 한다.

3. 평소와 다르게 찬양을 부른다.

가능하면 찬양대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을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 미리 받도록 한다. 남자들이 많이 빠지는 주에는 여자 성가대원들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준다. 여자들이 많이 빠지는 주에는 남성4중창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 상황에 맞추어 음악을 계획한다. 참석할 수 있는 원래의 찬양대원들과 여름에 더 잘 참석할 수 있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여름철 찬양대도 구성해 본다. 찬양대와 악기 없이

한 주는 교인 전체가 무관주 합창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져볼 수도 있다.

4. 날씨를 활용한다.

교회 중심의, 교회가 후원하는 야외 활동을 제공한다. 지역 여름 축제 장소에 진열대를 마련하거나, 안전에 관한 토론회나 여름 콘서트 같은 지역행사를 여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 그리 덥지 않은 날 공원에 소풍을 나가 야외예배를 드린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 시간이 적힌 카드가 붙어 있는 시원한 물병을 나누어 준다.

5. 다른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을 한다.

탁할 수도 있다. 너무 큰 작업이 될 것 같으면 하계 마무리 예배 때 교인들의 휴가 경험을 간단히 말해 보게 한다.

7. 휴식시간을 포용한다.

여름철 자유 시간을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특별한 목적의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활용하라. 계획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었다면? 청소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단기 선교 여행은? 이때를 이용해 교회를 단장해 보거나 한가한 여름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제 다시금 등장하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다가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바로 수정헌법 제 1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립학교나 직원들은

수정헌법 1조가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육성시키는 “국교금지조항”(the Establishment Clause)을 준수해야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연설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 성안에서 종교를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50년 전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1962년 6월 25일에 내려진 사법부 결정(Engel v. Vitale)과 다음 해 6월 17일 내린 판례(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는 미국 건국 이래 면면히 흘러내려 오고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즉 학교가 주최하는 어떠한 기도나 성경공부가 위헌이라는 판례였다.

그러나 당장 종교교육 폐지로

곤란에 처한 당사자는 바로 학교였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상적이지, 정기적으로 가르쳐왔던 성경공부가 금지되자 교사들은 종교 관련 주제들을 피하는 것으로 대처했고, 학생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만큼 판례 시행 당시 문제가 많았다.

〈3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남미 이민자들 복음주의교회 변화시키다

월드, “히스패닉들의 보수신앙, 복음주의 지형판도형성에 영향” 보도

미국 정치계에서 이민법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지만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이미 남미 출신 이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그 지형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여러 보수주의 교단들은 남미계 교인들의 증가로 목회와 사역의 방향을 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의 교외에 있는 남침례교단 소속 터닝포인트교회(Turning Point Church)는 그리스도를 다양한 문화와 연합해주는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민자 출신인 로자노(Noel Lozano) 목사와 로드리게즈(Jorge Rodriguez) 목사가 지난 2009년 공동 개척한 이 교회는 현재 약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매주 영어와 스페인어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터닝포인트교회는 지난해 50명의 새 교인에게 침례를 줄 정도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단체 퓨포럼(Pew Forum)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남미계 이민자 2/3 정도는 천주교인이지만 그 비율이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역에서 남미계 교회가 늘어나고 있

복음주의 교단들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은 데 헤수스(Wilfredo 'Choco' De Jesus) 목사인데,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교회 중 하나인 시카고에 위치한 새생명언약교회(New Life Covenant Ministries)이다.

미국의 시사지 타임(Time)은 얼마 전 데 헤수스 목사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또 그의 이야기를 커버스토리로 선정해 소개하기도 했다. 다른 남미계 목사와 달리 데 헤수스 목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새생명

남침례교 등 미 보수교단에 남미계 교인 증가 남미계 천주교인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

다고 밝혔다. 남침례교 소속 서던이반젤리컬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의 총장 랜드(Richard Lnad) 박사는 남미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그들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미국에서 침례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침례교단 소속 교회 중 남미계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는 약 3,2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2020년에는 7,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다른

천주교회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 선출로 인해 미국의 남미 이민자들 사이에서 천주교회의 재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남미 이주민들 중에는 천주교회와 기독교회를 함께 다니는 이들도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남미계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절반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남미계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남미계 천주교 교인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

연약교회에서 14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지난 2000년 그가 담임목사가 된 이후 이 교회는 120명에서 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새생명언약교회도 여러 성전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노숙자 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 범죄자 선교도 하고 있다. 또한 새생명언약교회는 지난 2002년부터 시카고 인근에 매춘 조직에서 탈출한 여성과 마약 중독 여성을 위한 농장도 운영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법부에 의해 결정된 사실에 대해 오히려 종교는 미국인과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적극적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대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결정은 일반 미국인들의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실제로, 오하이 주에서는 오히려 학교 졸업식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가 이뤄지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목회자들 역시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 미시간 주 밴톤 하버의 한 중학교에서는 목회자들이 교실 뒤에 앉아서 침묵으로 같이 했다. 학생들은 이들을 지각 관리하는 교직원이나 학교경찰보다 더 높은 존경으로 대하기까지 했다.

목회자들은 때때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권면하기도 했

다. 해당 중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흑인들로 이들은 목회자들의 침묵시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뿌리가 바로 기독교 영성에 있다는 사실까지도 파악하는 등 벤톤 하버의 중학교에서의 목회자들의 사역은 사법부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해 성공을 이룬 사건이었다.

학교에서의 클럽 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 역시 문제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중심이 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교직원들의 역할은 단순히 관찰자였고, 외부 출입 어른은 배제됐다.

그러나 알라바마 노타솔과 고교는 한 마디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졸업률이나 대학 진학률은 미 전국에서 항상 하위권이었다. 따라서 학교 교장 솔렌(B Sullen)은 항상 통합교육과 전투를 벌여야만 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폐교하는 것이 현명하

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캠퍼스 라이프 책임자 플레나간이 솔렌 교장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안하자, 솔렌 교장은 단번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바로 캠퍼스라이프가 아이들의 건강한 인격형성을 돕는 훌륭한 신앙을 기반 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었다.

솔렌 교장은 현명했다. 바로 현행 법률이 금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양하면서, 캠퍼스라이프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은 현저하게 급상승했다.

결국 미시간 주 밴톤 하버와 알라바마 노타솔과 고교 경우는 두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도 위헌이라고 제소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문제를 고백하는 대신에 믿음을 고백하라

(시 97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삶의 성장 과정이 너무 느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의 성장 과정이 느리면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뵈실수록 많이 알아야 많이 누릴 수 있고, 많이 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으로 보기에는 마치 애굽의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그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합니다. 애굽 전역의 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다음엔 애굽 전역의 개구리 떼가 육지로 그릇 안으로 방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러한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엔 이가, 파리 떼가, 악종이, 독종이, 우박이, 온 전역에 떼무기 떼가, 대낮인데도 암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외의 곳곳에 전부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공간을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겠습니까? 문제는 내 믿음이 제한을 받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곡을 할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믿게 하는 신앙의 훈련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 주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애굽 왕이 비웃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고생시킵니다. 5장을 읽어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장로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겠느냐고 하십니다. 하나

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풍성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삶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이다”(1절). 악한 자가 통치하면 땅은 애곡하고 슬퍼해야 하는 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실 것이고 내 대적을 다스리실 것이며, 내 문제를 다스리실 것이며,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바다에서 주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보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문제에 대하여 외치고 고백하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타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흥해를 만나도 여러고성을 만나고 할 때 그 당시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육신에서 말 하는 근심과 불안과 원망을 들고 고백하여 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직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메사과 아벳스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것으로 고백하는 대신에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말을 하면 오늘날도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환경임을 믿고 삽시다. 아멘.

부목사 청빙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는
PCUSA 소속 교회로서 Southfield, Michigan 에 위치하여 “3세대가 함께
제자 되는 교회” 의 비전을 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북미주 목회 경험 있는 분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PCUSA 목사이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신앙고백서
추천서 3통 (목회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밀봉하여 발송)
최근 설교 동영상이나 CD/DVD/MP3 2 편
학위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제출마감: 2013년 8월 31일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kpcmd.org

서류 보내실 곳

KPCMD APNC
26492 Mandalay Ct.
Novi, MI 48374
email: kpcmd.apnc@gmail.com

플타임 교육목사님을 청빙합니다.

Seeking English Ministry Pastor(Ordained Pastor)

North Carolina 그린스보로 지역에 위치한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는
다음과 같이 플타임 교육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KPCG is looking for a full time English Pastor with passionate heart for serving and providing leadership in College group and English Congregation Ministry.

1. 자격(Qualification):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신 분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학교이거나 준하는 학교) An accredited Seminary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1.5세와 2세와 영어회화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
Passionate for 2nd Generation and English Congregation
-언어(Bilingual Korean Speaker/Fluency in English required):
이중언어, 특히 영어 설교와 영어로 사역하실 수 있는 분

2. 담당부서: 교육부, EM, 대학청년부

3. 제출서류(Application Requirement):

-이력서(Resume-includes family status with photo), 졸업증명서(Diploma of M.Div.),
목사안수 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추천서 2장(two Recommendation)직접 교회로 메일),
목회소견서(Statement of faith and vision for ministry), Recently, recording English Sermon(1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Application will not be returned)

-접수 마감: 8월 31일(Application Deadline)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vhanus@hotmail.com 참조 홈페이지 www.kpcgnc.com

-보내실 곳(Submit):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교육목사 청빙 담당자 앞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섭리와 우연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

하실 때 무작정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격동의

풍랑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아시고 계획을 세워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복수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박찬욱이라는 영화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지금 연달아 복수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드는데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주인공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더라도 복수하려고 했던 노력이 헛수고

되면서 복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였다”고. 복수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치면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수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자기 안에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다른 대상에게만 쏘려고 한다. 그렇게 복수한다고 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니체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다른 유형은 남들이 걸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자기 갈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섭기는 일이

주어졌다면 섭기라.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사시고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시라.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효를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썼다. 사람들이 종교의 수련을 다 쌓고 깨우치고 나면 딱 두 가지가 남는데 첫째는 자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마음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야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 정도 만해도 참 감사하지! 우리 자식이 이 정도 큰 것 만해도 감사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 했다. 그러

니가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가치를 터득하고 나면 ‘그래 나만 먹고 잘 살면 안 되지!’에서 ‘저 사람도 잘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런다는 것이다. 요셉을 보자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타국에서 노예생활까지 하면서 분노에 가득 찼을 수도 있는 젊은이가 ‘저 사람들의 근심을 내가 해결해주어야 되는데!’라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살았음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남의 근심을 가지고 고통을 함께 겪어보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함께 울어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 질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규칙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등 신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주관이나 신념대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행동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민사회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증세를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행복하고 뜻 깊게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이 비록 곤고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포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후7:1에서도 엡4:1-2에서도 골3:12-14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데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있을 리 없습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본문의 말씀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교육방법입니다. 어려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투명한 진로와 미래 속에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원동력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막대한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그 거리가 먼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고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요6:4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살전4:3-7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계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 예든지 흠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시

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믿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둘째,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셋째,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너무도 보편적인 얘기이긴 하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조건입니다(히11:6). 아무리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이 그대로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히11:1).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방향만 제시하실 뿐 구체적 지시를 해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 멋진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고 나아가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대로 되리라’(막11:24)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꿈을 앞고 그것이 믿는 대로 실현되는 것, 이 얼마나 멋지고 흥미진진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며 사는 믿음의 참된 재미가 여러분과 제 삶에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포인트

(히브리서 11: 8-11)

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전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 주변에 가득한 방향과 좌절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9). 성도가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낙심하도록 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도 전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첨저녁으로 대하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는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에 우리가 분만을 만한 것들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세대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중 즐거자와 놀자로 들떠 있으며 예배보다는 재미와 신나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말초신경 자극적인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적 접근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문화와 생활 풍습과 삶의 자세에 함께 휩쓸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1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언제 어디로 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언제” 가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고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간순간을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결을 한결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11: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

고 있는 것입니다(빌4:8-9)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하며 이루어 나가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창12:4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15:1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불리하면 놓아버리지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오이코스 대학교 2013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안내

신학과 School of Theology

학위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사과정 Bachelor of Arts in Biblica Studies	4년	고등학교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석사과정 Master of Divinity	3년	학사학위 소지자 혹은 동등 학력자

음악과 School of Music

학위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사과정 Bachelor of Music	4년	고등학교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석사과정 Master of Music	2년 (학부 비전공자는 3년)	학사학위 소지자 혹은 동등 학력자

본교특징

본교에 입학 후 2학기 동안의 예비과정은 영어로 전과정이 진행되므로 생활현장영어와 학습영어가 동시에 충족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입학안내

가을학기 개강은 8월입니다. 특히 유학생 Visa로 전환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입학원서 제출기간
구 비서 류

2013년 8월 23일까지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3. 신앙간증문
4. 추천서
5. 재정증명서 (유학생)
6. I-20 신청서 (유학생)

오이코스 대학교
Oikos University

원서접수처: 교무과
입학상담: 510-639-7879 / Fax 510-639-7810
7850 Edgewater Dr. Oakland, CA 94621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의학적으로 보는 동성애의 실체

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유전이 될 수도 없다!

지금 캘리포니아와 미국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치관 전쟁을 치루고 있고 앞으로 그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있으며,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이후 몇 주간 의학적 연구조사들을 통해 동성애의 실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현실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어서 동성애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

은 굉장히 낮아지고 결국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 결과로 그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집단(동성애자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의학적 이치라고 한다.

2. 그들의 성관계 과정, 대상, 방법들은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성 관계라는 사실이다. 동성애 성관계는 동성인 대상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성관계이기(나중에 더 설명) 절대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도, 성관계 안에서 유전자를 만들어주는 DNA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닐 화이트헤드 박사에 의하면 유전자는 세포핵 안의 DNA에 있으며,

유전자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동성애란 행동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변화돼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가계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동성애자라고 하는 가족이(이때 나이는 거의 10대 이후)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이 확인돼왔기 때문이다. 유전이라면 다시 정상인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론: 아마도 동성애가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결과일 수 있다. 또는 핵심적인 유전자의 한 두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있는 도시들이 대도시라는 것을 볼 때 또한 확인된 사실이다.

의학적 왜곡과 의학적 진실

1993년 자기 스스로 동성애자였던 해머는 아주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가계의 염색체를 분석해 동성애 성향이 X염색체 위의 Xq28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성급히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하면서 서구 언론들은 동성애 유전자를 드디어 발견했다고 유람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발표했다.

그러나 1999년 라이스와 다른 연구팀들은 더 많은 숫자와 여러 분류 사람들의 가계염색체를 분석하며,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동성애자 가계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게 됐다. 즉 라이스와 다른 연구팀들은 Xq28 존재가 남성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지만, 이런 기사는 매우 작게 나갔기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리고 2005년 또 다른 연구팀들이 확인을 위해 더 많은 가계를 조사한 결과 다시 한번 동성애 성향과 유전자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전 결과는 조사한 가계 수가 작음으로써 생긴 통계적 착오로 추정할 것을 발표했다.

그 당시 해머 또한 새로운 연구에 포함되었었으며 자신이 1993년에 발표한 것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머의 “잘못됐다는 발표 결과”는 그 당시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 아직까지도 보통 일반인들은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잘못된 의학적 연구발표와 무엇보다도 잘못된/왜곡된 의학보도를 수정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자유주의 패스컴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해 많은 혼돈과 잘못된 인식이 높아져 있다. 그러나 계속 되고 또한 확인되는 의학적 결과와 논리에 의하면 동성애는 절대 유전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동성애자 해머가 주장한 동성애 염색체 Xq28는 오판 6년후 잘못 증명 불구 자유주의 미디어 등 주장 계속 나이 많아질수록 동성애 감소, 대도시거주자 많아

다. 동성애자들도 어쩔 수 없이 동성행위를 하기에 사회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혼돈 시켜왔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 미디어와 주류 신문사들은 동성애 운동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정보에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학적 조사의 진실

우선 결론적인 의학적인 대답은 닐 화이트헤드(Dr. Neil Whitehead)박사와 여러 의학 연구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는 유전적이지도, 선천적이지도, 치유불가능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다.

1. 어떤 경우에서도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이 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행동양식(예: 동성행위)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동성애자들)이 자녀를 적게 낳게 되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확률

인간의 DNA는 약 1.8m라고 한다. DNA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한 개의 세포로 된 수정란이 분열하여 100조 개의 세포로 된 몸을 형성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100조개의 세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심장, 간, 위장, 두뇌 등 각각의 장기는 수백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반론: 동성애는 유전적일 수 있다.

대답: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행여 동성애 유전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숫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도 안되는 숫자였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는 의학적 결론이 내려진다.

반론: 동성애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답: 일반적인 관점에서 많은

서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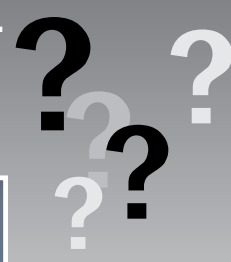
대답: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많다면 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기에,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다윈증후군과 같이 한 두 개의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25%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애의 빈도는 약 2.4%이기에 동성애가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다고 한다.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나이 많아질수록 감소한다고 나타나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이면 나이가 들어도 그들의 숫자가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상식일 것이다.

또한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그 의미는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는 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사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현재 캘리포니아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기독교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동성 커플들의 사랑과 결혼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Lee

A: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결정이 있는 이후 수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애플의 iTunes에선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동성애 영화리스트를 Gay Pride(동성애의 자부심)이라는 타이틀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중에 한 영화의 프리뷰를 보면 어느 평범한 가정에 부부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인에게 여자파트너를 제안하게 되고 첫 만남이후 평범했던 부인은 여자파트너에 빠져들어 동성애에 탐닉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제목이 The perfect Ending 즉 ‘완전한 결말’입니다.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터인데 이런 대중미디어를 통해 동성애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자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용 영상을 아이들이 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 우리 아이들 중에 이성에게 작은 상처만 받아도 동성애자

난잡한 성생활 등으로 평균수명 짧아

로 돌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며 친구와의 우연한 스킨십에도 사탄은 동성애 감정과 생각을 주입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고전6:9-10절에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6:9절에는 탐색하는 자(male prostitutes, 헬라어 Malakoi)와 남색하는 자(homosexual offenders, 헬라어 arsenokoitai)로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라코이(탐색하는 자)는 “만지기 부드러운”이란 의미로서 헬라인들 사이에 동성애적 성교에서 수동적인 남자역할을 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아르세노코이타(남색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침대 속의 남자”란 의미로 “동성애 행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동성애 커플들의 사랑과 결혼을 왜 인정할 수 없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1. ‘동성애커플들의 부부라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신화요 모순이다.’ 이것은 존 스타트가 그의 책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 책에서 말한 것입니다. 게이 관계는 정절보다 난잡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1978년 조사에 75%의 게이들이 평생 100명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15%는 100-249명, 17%는 250-499명, 15%는 500-999명, 그리고 28%는 1000명이상의 섹스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43%의 게이들은 평생 5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며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성애자들이나 동성결혼자들의 난잡한 성생활은 두 사람이 커플이라고 바른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2. 동성애자들의 수명은 짧고 피해와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평균수명은 일반인보다 20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슈미트는 구강 및 항문 성행위로 인해 전염되는 일곱 가지 바이러스성 감염과 네 가지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건강상 문제가 동성애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잡한 성생활에 의해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행위에 의해 쉽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에이즈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는 전파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됩니다. 전파된 HIV는 10년 혹은 10년 이상 인간의 몸에 잠복해 있으면서 때가 되면 면역계와 신경계를 공격하면 죽게 됩니다.

제 6 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The Great Vision Church)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 대 상

High School Senior, College, Graduate School

● 자 격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 장학금: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 - facebook group “Grea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3” 에서 다운
-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 증빙서류- 일반 장학금: 성적 증명서, 첨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목회 장학금: 재학 증명서, 첨기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 출석 교회 주보
- 수여금액: 대학생(\$1,000), 고등학생(\$500)

● 접수마감

2013년 8월10일 소인

● 접수처 및 문의

우편접수 : 청운교회장학위원회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장학금 수여식은 2013년 8월 25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와 8월 18일까지 개별통보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운교회
The Great Vision Church (CRC)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2013년도

학생,교수 모집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온라인, 학생모집 학과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 음악 학사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

◆ 대학원과정(Master) 3년

❖기독교 교육석사 ❖종교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신학 석사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

◆ 박사과정(Doctor) 2년

❖기독교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 ❖신학 박사 ❖종교철학 박사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	-----------------

연락처

- 교무처:(323)428-7878
- 교학처:(213)999-1307
- 팩스:(323)622-8376
- 이-메일: mrtsusa@hotmail.com
- 한국 사무소: 02-888-0672

www.mrtsusa.org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목회서신

들림을 받으려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성경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은 자가 에녹과 엘리야였다. 이는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집종의 표(666)의 시행을 통한 대환난 전에, 들림 받을 수 있다는 예표요, 소망이다. 또 한 성경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가 위함이었지만 재림은 성별된 거룩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들림 받을 의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 어떻게 하면 대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1.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는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천국도, 은사도,

기적도,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했다면, 죄사함 받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된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죄짐 때문에 들림 받을 수 없다.

2. 하나님과 동행하라.

성경상 인류 최초로 들림(승천)을 받은 사람은 에녹이다. 그는 성경상 특별한 신앙업적이나 선행, 공

로를 찾아 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았다(창 5:21-24).

“동행”이란 직역하면, ‘함께 행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는 삶”을 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들림 받을 수 있다.

3.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라.

기도는 영적 대화이고,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없는, 즉 대화와 교제가 없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들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흥허물 없이 격의 없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교제의 관계라고 말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

음을 맛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을 수 있었다.

4. 맑은 일에 충성하라.
엘리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이 특심(Very Zealous)하여(왕상 19:10, 14),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았다.

예수님도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마24:40-41)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일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다.

5.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후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하자,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셨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

씀을 가지라”(엡6:17)고 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대환난 전에 들림 받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들림 받을 수 있다.

6. 성령충만해야 한다.
성령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충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성령충만은 곧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이다. 성령이 충만해야 회개의 영이 임하여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동행, 교제할 수 있고, 성령충만해야 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성령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다.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들림 받을 수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종교지형이 바뀐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보수 신학 대학인 풀러신학교에서는 지난해 한 학생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모임을 만들었다. ‘원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는 30여명이 참여해 복음주의 교회 내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크 레버튼 총장은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동성연애, 혼전 성관계, 혼외 관계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학교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원 테이블은 우리 시대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섹슈얼리티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옹호했다.

미국의 종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수일색이던 미국 기독교인들도 달라지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공공종교연구소가 19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적 보수층은 줄고 있고, 그 빈자리를 더 젊고 다양한 인종으로 이뤄진 종교적 진보그룹이 차지하는 중이다.

보고서는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학적·사회적으로 보수적 의식을 가진 이들이 28%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19%)보다 많긴 하지만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18-33세 사이에서는 종교적 보수 그룹(17%)보다 진보 그룹(23%)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종교적 진보 그룹의 평균 연령은 53세였고 백인이 다수다. 종교적 진보 그룹은 평균 44세이고 히스패닉과 흑인이 다수다. 미국인 전체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이런 조사 결과는 인구통계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의 변화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종교적 진보 그룹의 79%는 “신앙인이란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답한 반면, 보수 그룹에서는 “신앙인은 좋은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답한 이들이 51%로 가장 많았다.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개인적인 자선활동을 의미한다”는 응답이 50%였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 이들이 41%나 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보수적인 폭스뉴스는 “종교 좌파가 뜬다”며 요란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인과 기독교인에게 의존하는 선거전략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앞으로 종교적 이슈보다 경제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보수 세력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진보적인 그룹 안에서도 비종교 세력과 종교적 그룹이 손잡기가 쉽지 않아 어느 한쪽이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뢰아교회연합, BWA 가입 또 무산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서울성락교회·김기동)이 최근 침례교세계연맹(BWA·총재 존 업튼 목사)에 년 회원가입 신청이 또다시 무산됐다. 18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에 따르면 BWA는 지난 1-6일 자메이카 오조 리오스에서 개최된 2013년 연차총회(사진)에서 베뢰아 측이 신청한 회원가입 안건을 보류했다. 베뢰아의 회원 가입 안은 지난해 BWA 연차총회와 지난 3월 실행위원회에서도 잇따라 보류됐다.

기침 총회는 베뢰아가 전 세계 침례교인 연합체인 BWA에 회원 가입을 청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기침 총회장 고홍식 목사와 BWA 전 부총재 한명국 목사 등 6명의 파견단을 이번 총회에 보냈다. 파견단은 BWA 정관과 부칙에 따라 기존 회원 교단의 동의 없이 베뢰아의 회원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베뢰아의 이단성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와 베뢰아의 신학적 주장에서 드러난 오류 등을 BWA 회원가 임위원회에 전달했다. 한명국 목사는 “한국교회가 베뢰아 측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베뢰아의 BWA 가입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베뢰아의 BWA 회원 가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연구자료에 따르면 베뢰아는 귀신론 사상 등으로 예장 고신과 합동, 통합, 기침 총회 등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됐다. 한기



총도 2005년 8월 이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성락교회 관계자는 “보류된 것이지 부결된 것은 아니다”며 “대신 BWA는 기침과 베뢰아 측의 화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뢰아가 정치적으로 이단논란에 휘둘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재평가가 한국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뢰아는 재적교인 수가 18만여명에 이르는 게 성락교회 측의 설명이다. 전국대학에 CBA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처리

영국 하원은 16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이날 하원에서도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동성커플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고 민간이나 종교기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허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동성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반자 관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리아난민 돕기 세계교회를 올린

사도바울의 전도여행 본거지이자 성지 유물의 보고(寶庫)였던 시리아에 내전이 2년간 지속되자 세계교회가 속출하고 있는 난민을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18일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기독교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교회들이 18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과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요르단과 터키, 레바논 등의 현지 교회들은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48만명의 난민이 모여 있는 요르단의 경우 현지 교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난민등록을 비롯한 긴급구호, 어린이 교육 등에 앞장서고 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마프락시(市)의 엘라이언스교회는 대표적인 ‘침방’ 교회다. 교회는 마프락시에 설치된 자타리 난민촌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난민을 돕고 있다. 1년 전

시리아에서 도착한 여성 난민들이 교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다. 담임인 누르 목사는 “교회는 사역팀을 나눠 난민에게 식량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구호품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마프락시 현지를 방문한 소윤정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따르면 요르단 현지교회의 구호사역과 복음증거 사역은 전례 없는 결실을 맺고 있다. 난민들은 아무 반감 없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 현지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 A목사는 “난민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슬림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엘라이언스교회 뿐 아니라 나사렛교회와 침례교회 등 10여개 현지 교회들이 ‘거리의 난민’을 위해 어린이학교와 초정 잔치, 영화상영, 방문구호 등에 힘쓰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은 시리아에 타진 현재의 고난은 2000년 전 바울의 고난과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사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교회들은 물질적 지원과 함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국제침례교협회(ABWE) 구호팀 잭 시플렛 사무총장은 “시리아 난민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수단 사무실에 수류탄 떨어져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은 수단 남다르푸르의 현지 사무실에 무장 세력이 폭탄 테러를 벌여 현지인 직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18일 이메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수단 남다르푸르 지역 니알라에 위치한 월드비전 사무실에 무장세력이 로켓추진유탄 발사기로 수류탄 공격을 가해 수단 직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월드비전은 지난 4일 무장 세력 간 충돌이 거세지면 서 월드비전 사무실에도 수류탄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월드비전 전지환 국제구호팀장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의 후원금으로 한국 월드비전과 식수사업, 평화재건 교육사업이 펼쳐졌던 곳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온 직원들의 비보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익안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권 태 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부모를 통한 자녀의 복과 화 (1)

(삼하12:13-18,24-25)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장영춘 목사님과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녀들이 평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나누고 35년간의 목회경험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여 범조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

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삼하12:14).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낳은 아이를 치셨고 아이는 심히 앓다가

들이었기 때문이고, 후에 난 아들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얻은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이레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 다윗과 밋세바는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삼하12:25).

똑같이 다윗과 밋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지만 한 아들은 죽어야 했고 다른 아들은 살아서 사랑받으며 여디디아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먼저 난 아들은 다윗의 죄 중에 태어난 아

사랑을 받아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원리는 자녀의 미래가 부모에 의해 좌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에는 지식교육, 생활교육, 환경교육, 마음교육이 있습니다. 부모는 말로써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예절과 관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보고 겪는 주변의 환경이 자녀에게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자라

며 습득하게 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으나, 죽고 난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를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삼하12:20).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가 말로 교훈한 것보다 삶으로 보여준 것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육으로 심어 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신령한 가정입니다. 목회자의 강단에서의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자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가족임을 깨닫고 목회하면 목회자의 삶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설교로 전해집니다.

2. 부모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을 받은 택한 백성들은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영과 육의 필요가 모두 채워져야 시대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33년 전 선교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원장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

다. 성경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목회자로서 자기관리를 잘하고 아내와 더불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며 목회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되려면 먼저 지도자인 목회자가 주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장성했을 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자녀는 말씀 안에 잘 자랐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삶으로 전하는 설교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저는 35년 전에 쓰레기장 옆 공터에 천막을 치고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하여, 아홉 번 예배당을 옮겨서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35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질적·양적·사회적으로 고르게 성장해서 세상에서 교회의 참 모습을 보일까를 고민하며 목회했습니다.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로 나타나서 육의 눈으로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의 본질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복음과 삶, 복음과 문화, 복음과 세상,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녹아지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교훈했던 것처럼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품고 함께 가고자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신령한 가정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가정사역 칼럼

배우자감을 만나려면...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가장 큰 기도제목 중 하나는 배우자감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7절 이후 말씀처럼 기도로 구하고,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리는 액션(action)이 필요합니다. 곧 내 배우자감이 있을 만한 모임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고 싶다면,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

임에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곧 여름수련회, 선교여행, 전도모임, 봉사모임 등입니다. 여름이 되면 각종 수련회와 선교여행으로 청년들은 분주합니다. 이러한 각종 모임에 통해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과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며 깨달은 바는 모임

의 영성이 높은 모임일수록 결혼할 수 있는 커플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더라도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뜨리는 겸비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곧 겸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기준들, 내가 선호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못된 허상을 쫓게 하는 기대나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대의 많은 부분들이 반드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혼자들은 배우자감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에게 ‘어떤 배우자감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나를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집안도 화목하고 믿음이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보면 형제가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나이가 40대 중반이나 되어야 여러 분야에서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형제자매들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환경에서 공급 받지 못했던 여러 가치를 결혼을 통해 배상받으려는 마음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란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적응하며 빚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높고 고집이 셀수록 만남이 어려워 집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풀리지 않는 이성교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업이나 직장 문제가 생긴다든지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한다든지,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생길 때 그러한 어려움이 속히 통과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순직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기준(마음)을 나도 갖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항들을 나도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과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순직하게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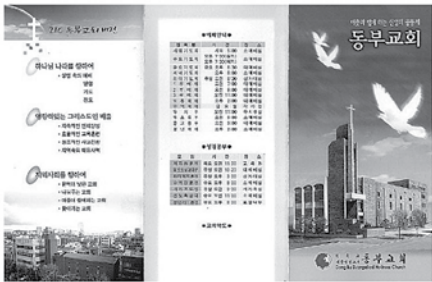
당신의 결혼 배우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하시고 영광스런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마6:33).

이메일: milykum@gmail.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8) 공룡의 뼈와 고대 세균의 DNA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 지구의 나이가 46억년 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8가지를 소개하였다. 수십억 년의 진화론 역사가 들어 있는 학문 세 분야가 있는데 지질학, 천문학, 그리고 생물학이다. 이들 분야에서 진화가 사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증거들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부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지구가 젊다는 적극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왔다. 이 증거들 중에 석탄의 방사성 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생물인 지구 자체와 행성 혹은 혜성을 다룬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물학적으로도 지구의 나이가 젊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공룡 뼈 속의 혈구

일반인들에게 지구의 나이가 수 천 년이 아니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아마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언급할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더하는 증거가 공통일 것이다. 공룡은 2억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6500만년 전에 멸종했으므로 지구의 나이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6-7천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증거가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법을 통해서 봐도 지구가 젊다는 증거는 지난 칼럼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고 여기서는 오래 되지 않은 공룡 뼈를 소개한다.

1993년에 깜짝 놀랄 발견이 유명 과학지 Science를 통해 발표되었다. 공룡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T. rex의 다리뼈에서 혈관과 적혈구가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생체 성분들이 오랫동안 보존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견이 놀라운 것이었다. 수많은 반론들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더욱 자세히 반복해

서 조사해본 결과 그 공통 뿐 아니라 다른 공룡에서도 그리고 시조새에서도 각 생물에 특이한 세포들, 단백질들, 그리고 DNA 등 생물 성분들이 아직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논문(Proc. R. Soc. B. Octo-

되었다고 가정하면 상상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공룡의 화석이 아니라 뼈가 있고 물렁물렁한 조직이 있으니 그것을 탄소 동위원소로 연대측정을 해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과학자도 이 제안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숨을 죽인다. 이 분야의 진화론 과학자들은 떨고 있는 것이다. T. rex의 뼈에서 분해되지 않은 생물 성분들이 발견된 것도 불안한데, 여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측정을 해서 방사성 탄소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수억 년의 진화론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다(여기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진화론의 비밀 한 가지는 진화론자들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진화론은 이 비밀이 지켜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계는 그런 반진화론적인 주장은 일반 과학지에 채택되어 발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

2. 고대 박테리아의 DNA

지난 2000년, 2억5천만 년 되었

본 결과 현재 박테리아들의 DNA와는 같지가 않았다. 이 DNA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살았던 박테리아의 것이임이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결과로 과거 수백만 혹은 수천만 년 전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과학자들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던 다른 DNA들도 오염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 DNA가 분해되지 않고 정말로 수억 년 동안 보존되었다는 말일까?

2000년 10월 18일자 New Scientist지에서 지구미생물학자인 Parkes는 나사로 박테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화학법칙들에 의하면 박테리아의 포자상태에 있는 복합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산화탄소 같은 아주 간단한 화합물로 분해되어야 한다.” 박테리아의 포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왜 박테리아들이 죽어 없어졌는가? 다시 깨어날 박테리아들이 여기 저기 더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성경역사로 본 공룡 뼈와 고대세균의 DNA

지구 나이 46억 년, 생물의 역

T. rex 다리뼈 혈구발견 불구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안해 반진화론적 주장은 과학지에 발표 않도록 제도화



다는 소금 결정 속에 들어 있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는 유명 과학지의 보고가 있었다(Nature vol. 407, pp897-900). 이 박테리아는 다시 살아나 DNA 분석도 이루어졌고 그리 특이한 박테리

아도 아니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2억5천만년 동안 박테리아의 진화가 없었다는 이상한 말이다. 더욱이 박테리아의 DNA가 그렇게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보존되어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를 '나사로 박테리아'라고 부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DNA는 오래 가지 않아 분해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관찰하여 얻은 상식이다. 이 박테리아가 정말로 2억5천만 년 된 것일까? 불과 수 천년 된 것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2002년에도 유명 과학지인 Nature(vol. 417, pp432-436)에 1100만-4억2500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소금 결정 속에 갇혀 있는 바닷물에서 박테리아의 DNA를 추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DNA의 정보(염기서열)를 분석해

사 38억 년, 고생대의 시작을 6억 년, 공룡의 출현과 멸종을 각각 2억 년과 6500만 년으로 보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들은 공룡 뼈에서 발견된 세포, 혈관, 적혈구, 단백질들과 DNA가 과학적인 상상을 초월한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되어왔다고 의아해 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억 년의 기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 결과들을 부인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과학을 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화론 속에서 해매고 있다.

공룡 뼈 속에 남아 있는 생체구조와 성분들과 박테리아의 예들은 6천여 년 전의 창조와 4350여 년 전의 노아홍수의 격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역사를 통해보면 심하게 해결될 문제들이다. 성경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증거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공룡의 뼈와 소금 결정 속에 갇혀 있는 박테리아들도 쫓듯이 수 천년의 성경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귀 있는 자는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소리들도...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정직의 리더십

“정직(Honesty)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강력한 리더십은 정직의 리더십입니다. 부정직한 성품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여호수아 7장)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질을 탐하여 재물을 감춘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힘을 잃고 맙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직하지 않은 아간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이처럼 한 사람의 부정직함은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가족, 친척까지 죽음을 면치 못하는 비극을 맞게 했지요.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정직의 성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훗날 더 큰 성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직의 성품으로 기업을 성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국유리의 창시자인 최태섭 회장이지요.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최태섭 회장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피란을 가야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피란을 가기 전 최 회장은 그래도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서 떠나는 마당에 최 회장은 거꾸로 돈을 들고 은행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은행직원을 불렀습니다. 최 회장의 말을 들은 은행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전쟁 때문에 은행장부들이 불에 탔거나 분실되어 증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의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최 회장은 다시 반문했습니다. “지금 증서가 있고 없고는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는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어떻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은행직원은 최 회장의 뜻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최 회장에게 직원의 인감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주었지요.

6.25전쟁이 끝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최 회장은 급하게 필요한 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전쟁이 막 끝난 후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낙심한 최 회장은 돌아서서 가려다가 문득 피란길에 자신이 갚은 돈이 잘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간직해두었던 영수증을 은행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을 본 직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의 정직함은 이미 이곳에서는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은행장님을 만나러 가지요!” 최 회장을 만난 은행장은 최 회장을 환대하며 필요한 금액을 무담보로 대출해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정직한 성품으로 신뢰를 얻은 최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직의 성품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오늘 날 (주)한국유리라는 큰 기업을 세우게 되었지요.

정직의 성품은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정직에 관한 성구들을 붙여 놓고 매일 매일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는 말씀을 묵상하며 정직의 길을 묵묵히 따라 갑시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경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문 양장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SBC한인총회 황준석 총회장 취임 축하예배

“원칙과 법” 강조...교회개혁·타교단 협력사역 제시

미주남침례회(SBC) 한인교회총회 총회장 황준석 목사의 총회장 취임 축하예배가 지난 21일 황 목사가 시무하는 필라델피아 큰민음제일침례교회에서 열렸다. 황 목사는 제1부총회장을 거쳐 지난 6월 휴스턴에서 열린 32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황준석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총회장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한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황 목사는 “어떤 경우 은혜로 넘어가려다 보니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총회가 시끄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면 그것이 곧 은혜”라며 “원칙과 법을 지키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 총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총회장 취임 축하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원내는 황준석 총회장

이날 황준석 총회장은 총회발전과 관련해 200교회 개혁과 교단협의회 설립을 제시했다.

교회개혁은 남침례교가 20여년 전 시작된 1천 교회개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한인총회도 1천 교

회 목표를 위해 200교회 개혁을 기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황 목사는 밝혔다. 황 목사는 “교세를 볼 땐다는 것보다 교회를 개혁해서 복음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회장은 “미주에 있는 한인교단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협력 선교 등 동역을 하기 바란다”며 임기 동안 해외한인장로회와 협력사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독교회 담임)가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취임축하예배는 교계인사뿐만 아니라 다민족 커뮤니티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황준석 목사의 대사회 영향력을 보였으며 총회 관계자뿐 아니라 필라 협회회장과 목사회 회장 등 지역한인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황준석 총회장과 엄종오 총무는 22일부터 버지니아에서 뉴잉글랜드까지 미동부 지역 지방화와 교회를 순방하며 총회발전을 위한 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페트라교회에서 열린 옹기장이 찬양단 미주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옹기장이 찬양단 미주투어 중

“첫사랑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자”

미주투어 중인 옹기장이찬양단이 지난 20일 오후 7시 페트라교회(담임 김홍권 목사)에서 ‘예수 나의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졌다.

본 교회 찬양팀(인도 이원석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우리함께 기뻐해’, ‘나의 등 뒤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참 아름다워라’, ‘예수 우리 짝고’, ‘주행하신 일’ 등을 불렀다.

김남웅 옹기장이 대표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 사랑하기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첫사랑 기억하고 간직하고 구원의 감격의 감사

가 흐르고 흘러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 감격이 날마다 흘러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날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간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콘서트는 김홍권 목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계2: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옹기장이는 ANC은누리교회, 오렌지제일장로교회, 소중한교회 등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박준호 기자)

주환준 제3대 담임목사 청빙결정

오레곤선교교회, 임시 사무총회 열고 투표

오레곤선교교회는 지난 14일 주일예배 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박병주 목사 후임으로 주환준 목사(사진)를 결정했다.

차리 목사인 임형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회의에서 새 담임목사 청빙투표 결과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 교육목사 겸 부목사인 주환준(40세) 목사를 오레곤선교교회 제 3대 담임목사로 청빙을 결정했다.

주환준 목사는 한국에서 대원외과 중국어과와 서울외대 영어과, 그리고 서울신대원에서 신학석사과정을 마치고 해군에서 학사장교로 중



위 전역했다. 미국내 사역은 2008년 미주성결교단을 통해 목사안수 받은 후 산호세제일교회와 뉴욕성결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재직했다.

주 목사는 미주성결교 서북부지방회의 인사부 심리부 과정을 거쳐 8월 중순에는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족으로는 김미연 사모와 향기, 이레, 보배 등 세 자녀가 있다.

(기사제공: 오레곤선교교회)

패밀리터치 청소년리더십캠프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주관으로 열린 제8회 청소년 리더십 캠프(The 8th Leadership Camp)가 성료됐다. 7

월 11일부터 2박3일 간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 이 캠프에서는 “성공하는 십대들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10대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십대들이 길러야 할 습관, 주도적인 삶 살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상호이의 추구하기,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기, 시너지 활용하기, 끊임없이 도전하기 등 리더가 갖추어야 할 7가지 습관을 십대들의 눈높이에서 배우고 실천하므로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수립하도록 돕는 캠프다.

강사진으로 존 허 박사(목회상담), 서니 조(심리치료 박사과정), 리사 정(카운슬러), 제 C. 양(고등학교 교감)이 함께 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창조과학 탐사여행 중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창조선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성료

세계창조선교회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박창성 목사가 인도하는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의 탐사여행을 마쳤다.

두 달 전 이미 등록이 마감돼 성황을 이룬 이번 여행은 멀리 브라

질 한인교회에서 온 청소년들을 포함해 52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는데,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심신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됐다.

박창성 목사는 버스나 야외에서 틈틈이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그가 전공한 과학, 신학, 선교학을 활용해 성경과 실재와 연결시킴으로써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세계창조선교회가 교회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 진행되며, 교회나 단체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인도를 할 수 있다.

▲연락처: (503)330-2971 홈페이지 www.wcmweb.org (기사제공: 세계창조선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담임목사: 송병기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담임목사: 김혜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8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담임목사: 이만호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담임목사: 김재열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담임목사: 김승희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Fax. (201)8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담임목사: 황영진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담임목사: 이원호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담임목사: 박규성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담임목사: 이규섭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담임목사: 박마이클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담임목사: 송성섭 Tel. (704)481-0821 Fax. (704)9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담임목사: 이형만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담임목사: 최해근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담임목사: 김종운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burne Rd, Levittown, PA 19057	담임목사: 진용태 Tel. (414)461-1235 Fax. (414)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담임목사: 이영섭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담임목사: 나성균 Tel. (704)529-0900 / 0998(백스컬링)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담임목사: 정용교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담임목사: 박은일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담임목사: 전남수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ejas.com	담임목사: 유재일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담임목사: 하태수 Tel. 교회. (915)755-1490, 티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담임목사: 김성한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담임목사: 한세영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담임목사: 배현찬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담임목사: 나광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담임목사: 정태근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담임목사: 김수명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3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담임목사: 윤정용 Tel. (480)726-0195 Fax. (480)857-38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담임목사: 조진모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담임목사: 김선만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담임목사: 조일구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목회자초청 설명회
국제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 목사)과 부산 호산나교회(담임 홍민기 목사)가 주최하는 미주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목회자 초청 오찬 설명회가 8월 7일(수) 오전 11시30분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687-7414/서정호 목사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주최하는 제 9차 IEC K-12교장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본교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후 6일부터 8일까지는 멕시코 칸쿤을 현장방문 한다. 미국 교육시스템을 연구하고 현장견학 및 국제교육협력 방안을 위해 열리는 이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K-12 교장, 이사장, 교감, 기타 학교대표들이 참석하게 된다. 강사는 미국명문대학교 교장 및 교사, 학생지도전문가, 상담전문가, 커리큘럼 시스템 전문교수진이 담당한다. 컨퍼런스는 한국어 외에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시 등이 통역지원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midwest.edu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636)327-4645

퀸즈장로교회 2013년 단기선교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3년 단기선교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캄보디아: 8월 15-20일 △카작스탄: 9월 16-24일. 동 교회는 매 주일 저녁예배 후 준비모임을 갖고 있으며 후원물품도 기증 받고 있다. 캄보디아 파송예배는 8월 11일.

▲문의: (718)886-4040

은혜곤 목사 기감미주특별연회(LA) 뉴욕지방감리사 취임

21일 참사랑교회 신천임원 임직예배도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미주특별연회(LA) 뉴욕지방감리사 은혜곤 목사 취임축하 및 참사랑교회 신천임원 임직예배가 지난 21일 오후 5시 참사랑교회(담임 은혜곤 목사)에서 개최됐다.

감리사에 취임한 은혜곤牧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말하고 “해외 선교지 중에 어떤 마을에 소란이 있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을에 있던 예수님 동상의 두 팔이 훼손된 사건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회의 끝에 팔을 복원하는 대신 ‘우리가 당신의 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붙여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 “뉴욕지방 감리사직을 맡으면서 제 팔과 제 손으로

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주님의 팔과 주님의 손이 되어서 감리사 직책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사랑교회는 김기철 장로와 이용화-석정순 부부, 이용옥, 홍창옥, 양선철, 김우섭 권사 등 총 7명의 신천임원을 세웠다.

1부 예배는 김사무엘 목사(로즐린한인교회)의 사회로 차철회 목사(청암교회) 기도, 유도영 장로(뉴욕지방 실행부위원) 성경봉독, 참사랑교회 성가대 특별찬양, 이광풍 목사(필라델피아교회) 설교, 신명철 목사(뉴욕푸른초장교회) 봉헌기도, 김용해 목사(뉴욕원로목사회장)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임직예배는 신천임원 문답, 임직

패 수여 및 헌서, 축사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격려사 성영철 목사(주의빛교회), 답사 김기철 장로 등의 순서로 열렸으며, 뉴욕지방 감리사 취임축하하는 이선구 목사(샘이깊은교회), 답사 은혜곤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천임원 임직 축사에 나선 장영춘 목사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자를 직분자로 세웠을 때 사도들은 더욱 말

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임직 받은 분들은 이런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을 닮아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평통 미주부의장이기도 한 김기철 신천장로는 답사에서 “사회의 직책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장로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두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교회 밖 활동 때는 참사랑교회 장로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교회 이승한 담임목사(가운데) 위임예배를 마치고 노회원들과 기념촬영 했다.

“과거는 잊고 신앙의 마라톤을 뛰자”

뉴욕장로교회 이승한 담임목사 위임예배

뉴욕장로교회가 지난 21일 새 담임 이승한 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뉴욕장로교회는 3년간 공석이었던 담임목사를 맞았다.

동 교회가 소속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염영민 목사) 서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 주관으로 드린 위임예배에서 이승한 목사는 “마라톤을 시작한 선수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목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성원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답사에서 이승한 목사는 첫째, 뉴욕장로교회의 4대 담임으로 1-3대 목사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둘째,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는가” 반문하고 “정작 상처받은 여러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

같이 마음 아파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한 목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뉴욕장로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의 마라톤을 뛰자. 과거는 잊고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같이 달려가자. 시대의 여두ום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소망이 없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자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오른 길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며 약점도 가능성으로 보고 불려준 뉴욕장로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임예배는 위임국장 양조경 목사 집례로 기도 임희관 목사, 성경봉독 박정식 목사, 찬양 뉴욕장로교회연합찬양대, 설교 이만수 목사, 서약, 공포, 위임패수여 이만수 노회장, 답사 이승한 목사, 권면 조부호 목사, 축사 조문휘 목사, 특주한 예진 자매, 광고 및 인사 박병대 장로(당회서기), 축도 김영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수 목사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요삼1:1-4)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며 “어려운 자를 사랑으로 돕는 실천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부호 목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했으며 조문휘 목사는 “과거의 아름다움과 미래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축하했다.

(유원정 기자)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이보춘 장로) 제13차 목요 조찬기도회가 지난 18일 저녁 8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설교는 최창섭 목사(뉴욕에벤에셀신교회 공동담임, 뉴욕교협 증경회장)가 여호수아 14장 10-12절을 본문으로 “행복한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한편 장로연합회는 8월 25일(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다민족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사제공: 장로연합회)



퀸즈한인교회 임직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퀸즈한인교회 설립44주년 기념감사 및 임직예배

시무장로 6명, 안수집사 6명, 시무권사 15명 총 27명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설립 44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기념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임직자는 시무장로 6명, 안수집사 6명, 시무권사 15명 등 총 27명.

예배는 이규섭 목사의 인도로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가 빌립보서 2장 5-11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양춘길 목사는 “오늘 본문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겸손은 첫째, 겸손이란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는 낮아짐을 의미하며 셋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섭 목사는 “한꺼번에 많은 직분자들이 생겨 든든하겠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며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면은 박희근 목사, 축사는 김중훈 목사가 했다. 또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이 특별 찬양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참사랑교회 은혜곤 목사(앞줄 가운데) 감리사 취임 및 신천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자와 순서말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 순회상영

교회 규모 따라 후원금 책정

김상철 감독 최고의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이 선교의 계절 여름에 뉴욕일원을 순회 상영한다. 씨존과 뉴욕기독교방송(KCBN, 사장 문석진 목사)이 후원하는 이 영화 상영을 원하는 교회는 파이오니아21에서 제작한 DVD원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상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회규모에 따라 소정의 라이선스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라이선스 비용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며 성인 50명 이하의 교회는 200달러, 100명 이하의 교회는 300달러, 100명 이상의 교회는 상영 후 특별헌금을

하면 된다. 단, 50명 이하의 규모의 교회로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헌금은 “중독” 등 다음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파이오니아21의 영화제작비와 경비를 위해 사용된다. 선교영화 상영에 대한 문의는 (347)538-1587(문석진 목사) 또는 이메일(newyorktop@gmail.com)로 하면 된다.

영화 “잊혀진 가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pio21.net/pio/html/mychoice.html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13차 목요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2"×2") 2매
- ⑥ 입학 전령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①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②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③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④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⑤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한인타운에 미국 대형교회 들어선다 오아시스교회,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8월초 예배시작

LA 한인타운 월서 길 한복판에 주류사회 대형교회인 '오아시스 교회(Oasis Church)'가 들어선다.

현재 센트럴 LA 지역 월서 길과 하일랜드 길에 만나는 지점 근방에 위치한 오아시스 교회(담임 필립 와그너 목사)가 월서크리스천교회(634 S. Normandie Ave, LA, CA)로 옮기게 된다. 현재 월서크리스천 교회는 8월초로 예정된 오아시스교회의 첫 번째 예배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오아시스교회는 매주 3,000명 이상이 출석중인 남가주 지역 대형교회로서 현재 사용 중인 극장건물의 공간이 한계가 있어 새 건물을 찾던 중 월서크리스천교회로 이전하

게 됐다. 오아시스교회는 현재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교회 이전 소식과 리모델링 공사 현황 등을 공지하고 있다.

1984년 베벌리힐스 한 가정집에서 10여 명이 성경공부를 하며 시작된 오아시스교회는 현재 출석교인 3천여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교인수의 증가로 인해 1997년에는 극장을 개조해 현재까지 사용했으며, 이번에 새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된다. 교인의 70%가량이 20~30대로 구성돼 있으며, LA지역의 가정불화 등으로 홀로 남은 아이들과 노숙자들에게 식료품과 의류 등을 제공하는 일을 비롯하여 LA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한인타운 내 월서길과 놀만디길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오아시스교회의 새 예배처소인 월서크리스천 교회

전교인이 동참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

한편 오아시스교회가 이전하게 될 월서크리스천교회는 LA의 대표적 종교 건물로 LA역사·문화기념물 209호다. 1927년 지어진 이 건

물은 0.71에이커 부지에 총면적 2만5045스퀘어피트 규모이며 교인 수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로 지난 2011년 1000만 달러로 시장에 나왔다.

〈박준호 기자〉

KCCD 제12회 주택구입 박람회 연다 8월3일 오전10시부터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대표 임혜빈 회장)가 주최하는 제12회 주택마련정보 박람회가 오는 8월 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린다.

임혜빈 회장은 “주택구입을 위해 LA시에서는 6만5천 달러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또한 다른 시에서도 다운페이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돼있으며, 은행마다 보조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번 주택구입박람회는 그들과 파트너가 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행사는 △6만5천 달러까지 주택구입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

법 △3대1 적금 매치 프로그램으로 1만오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3천 달러까지 크로징 비용 보조금 받는 방법 △경매처분전의 부동산 구입방법 △현명한 주택구입자가 되는 방법 등이 제공된다.

일정은 오전 9시부터 10시 행사장에 마련된 각 부스별 전시장 관람,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세미나,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정보 받은 것을 부스별로 마련된 은행 등과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니시 등 통역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 (213)985-1500

〈박준호 기자〉

또한 꿈이있는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염교회 담임)의 찬양인도와 특송, 시인 최선호 목사의 격려사, 백승철 목사(에피포도교회 담임)의 축사와 서평이 있었다. 또 정한나 사모가 자신의 시 “그길”을 노래로 만들어 두 딸과 함께 불러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참여한 시인은 김영숙, 이은경, 정한나, 조명환, 박문숙, 현대식, 최창경, 이영인, 이인미 등이며 윤일홍 목사의 시는 신병욱 목사(로스앤젤레스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낭송했다.

이인미 전도사는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의 후원으로 마련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시라는 언어로 세상에 행복과 복음의 언어가 되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넛크릭 하나교회의 새 예배처소

시립도서관에서 예배드렸던 월넛크릭하나교회 건물로 교회이전... 감사예배 8월4일 오후 5시

그동안 시립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 화제가 됐던 월넛크릭하나교회(담임 김현진 목사, 미국장로회)가 오는 8월 4일 오후 5시 설립 2주년 및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김현진 목사는 “월넛크릭 하나교회가 약 2년 가까이 시립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피스 건물을 임대해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그동안 새로 지은 월넛크릭 시립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월넛크릭 시가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제는 주일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감격했다.

월넛크릭하나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되는 교회’를 비전으로 지난 2011년 8월 7일 개척했으며, 월넛크릭 시립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7월 7일부터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다.

월넛크릭하나교회의 설립 2주년 및 교회이전 감사예배는 오는 8월

4일(주) 오후 5시에 열린다. 주소는 1270 Springbrook Rd, Ste H, Walnut Creek, CA 94597

▲문의: (925)988-9136

〈기사제공: 월넛크릭하나교회〉



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나아드의 향유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시집출판감사예배 ‘나아드의 향유’ 동인 22명 작품 실어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전도사)은 동인 22인 시집 ‘나아드의 향유’ 출판감사예배를 16일 저녁 7시 한인 타운내 용수산 식당에서 열었다.

이날 예배는 문화선교원 시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온 ‘시로 드리는 예배’로 출판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나아드의 향유’에 참여한 동인들의 QT를 통해 제작된 시를 낭송했다.

서부교회 게시판

나성남포교회 말씀집회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운 목사)는 8월1일(목)부터 4일(주일)까지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집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승구 목사(함동신학대 조직신학교수, 안악교회 협동목사)이며 일정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12시20분, 오후 1시10분부터 3시까지.

▲ 문의: (310)327-8778

제6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담임 이병수 목사)는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며 자격은 LA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일반장학금과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에게 목회장학금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facebook group ‘Grea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3’에서 다운), 본인 에세이(테더용지 2장 이하), 증명서류(일반장학금: 성적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목회장학금: 재학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출석교회주보) 등이며 수여금액은 대학생(1,000달러), 고등학생(500달러)이다. 접수마감은 8월10일까지.

▲접수처: 청운교회장학위원회(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새생명선교교회 설립7주년 감사부흥회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사 1300 S Colorado St. Glendale)는 설립 7주년 감사부흥회를 8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주님의 마음을 사원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부흥회 강사는 정준성 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이며 일정은 9일(금) 오후 7시, 10일(토) 오전 7시, 오후 7시, 11일(주) 오전 11시.

▲문의: (818)952-2449, 539-0123

베데스다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베데스다대학교(설립자 조용기 목사)는 2013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신학학부, 유아교육과, 시각디자인학과, 음악학부, 경영학과, IT학과 등이다.

▲문의: (800)960-4583

커넬 대학 2013 여름특강 및 세미나

커넬대학(총장 박태문 박사) 2013 여름특강 및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일일상당 세미나-27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1시 30분까지 강사는 금병달 교수, 박미희 교수, 금정진 교수 △헬라이어 특강 및 설교 작성법: 7월 29일(월)부터 8월2일(금)까지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강사는 박태문 박사. 수강료는 일일 세미나는 점심식사 포함 20달러(부부 30달러)이며 헬라이어 특강은 200달러(부부 300달러,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은 장학혜택)이다.

▲등록 및 문의: (714)995-9988, (562)500-3256/박미희 목사

제4회 LA기윤실 목회자 멘토링 모임

LA 기윤실(3130 Wilshire Bl. #410)이 제4회 목회자 멘토링 모임을 오는 8월 6일(화)부터 6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모임의 강사는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이며 △이민교회와 건강한 목회를 위한 방안 △목회자의 정체성과 자기 관리 △설교의 의미 △설교준비와 작성 △바람직한 교회사역 △교회와 사회 이슈 △이민 1세와 2세 관계 △이민교회의 미래 모색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213)507-6416 박상진 간사 gopemu@gmail.com

LA사랑의교회 여름성령축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여름성령축제가 ‘행복해지는 불행극복 프로젝트!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8월 3일(토)부터 8일(목)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백동준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3일(토) 오전 6시20분, 오후 7시, 4일(주) 오전 8시, 11시, 5일(월)부터 8일(목)까지 오후 7시30분.

▲문의: (213)975-1111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3rd Street

Fedora St

LA GUEST HOUSE

Valencia

Kim's Place

Olympic Blvd

한남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익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워싱턴대학교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문화의 땅 제주특별자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2)

- 유 경 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E. 예루살렘 지역(2)

E-10. 통곡의 벽(The Western Wall-Wailing)

이스라엘 여행이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이곳의 서쪽 벽에 와본다. 통곡의 벽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갔던 모리아 산, 그 제단의 바위로 추정되는 곳에 건축자 솔로몬의 이름답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 성전이 섰지만 마치 천국입성을 험난한 여정이 마치 된다는 것을 예표라도 하듯 이 성은 수차례의 파괴와 재건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건축광이라 할 수 있는 해로대
왕이 민심을 사기 위해 지은 것을
AD70년에 로마 장군 디도(Titus)
가 완전파괴를 할 때 로마의 위용
을 과시하기 위해 서쪽 벽만 남겨
놓았던 것이다. 그걸 또한 모두 파
괴됐고 지금은 벽에서 튀어나와
보이는 일부분만 그 당시의 것이
다.

636년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모하멧이 모리아산(성전산)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황금문(Golden gate) 안쪽으로 황금사원을 지었으니 Dome of the Rock이다. 1967년 6일 전쟁 당시 요르단 것이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되찾았으나 지금은 이슬람 구역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이 황금색 돔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멀리서도 유독 돋보인다. 솔로몬 이후 20여 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나 현재는 이슬람 사원이 되버린 예루살렘 성전. 더 많이 울면 찾을 수 있을까...

그 사원 안에는 넓적한 바위가 놓여있는데, 교회나 성전을 지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바위, 동굴, 우물, 기둥, 옛 성전 등을 그대로 둔 채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바로 구역 내 남서쪽 귀퉁이에는 모습

성은 어깨와 무릎 위를 드러내면 안된다. 주로 구약을 읽는 책 스탠드나 의자까지 있다.

오지 못하는 먼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 아예 기도제목을 주문만 아 둘 사이에 끼워주는 접수사수 실도 있다. 요즘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온 것을 프린트해 대행해준다고 한다. 나라를 찾았지만 아직 성전을 찾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벽 앞에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소원기도 소리, 성경을 읽는 소리와 함께 통곡은 계속될 것이다.

E-11. 베드로의 예수님부인교회 (베드로통곡교회-Church of St. Peter Gallicantu)



들어지면서 쿠팡이 쟁해지는 이 교회는 가이바 대제사장 집터라는 발굴 결과에 따라 Assumptionist(남자들만의) 신부들에 의해 1931년 지어졌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다. 우리의 모습인 베드로에게 오히려 친근감마저 드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 설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롯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체포되신 후에 이 집으로 끌려오셨고 몸이 밧줄에 묶여 구멍을 통해 수직으로 내려져 창문 없는 지하 동굴 감옥에서 밤새 고문 속에 취조 당하시고 첫 재판이 열렸던 곳이다(마

26:57-63, 막14:53-65, 눅22:63-71, 요18:12-14).

발굴팀의 추정이 맞다면 베드로가 새벽닭의 울음을 듣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 부인한 것을 깨닫고 통곡한 바 곧 이곳이라(마26:34, 막14:62-72, 눅22:54-62, 요18:15-18).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떳떳하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재판장 소전만 베드로는 숨어들어 부인하며 저주한 장사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이다.

마당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당시의 여중, 로마병사 등이 있는 베드로 브론즈가 있고 그 위에는 긴 막대 끝에 수탉이 장식돼있다. 복음 읽기 후에 가면 종탑 끝에 이 수탉 모형이 달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교회 이름이 Church of St. Peter in Gallicantu이다. '갈licantu'는 라틴어로 닭 울음소리다. 그래서 일별 베드로통곡교회라고도 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측정자, 연자 맷돌, 지하 감옥, 안 뜰, 하인들의 기숙사와 비잔틴시대 교회의 유적이 발견돼 더욱 가야바의 집터 추론을 확고히 한다.

교회 바깥의 왼쪽 아래 부근에서 고대 돌층계가 발견됐다. 성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길로서 기드로 골짜기와 연결돼있다.

한다. 그래서 두개의 돌 판에 재판 받으러 끌려가는 모습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의 부조가 각각 새겨져 있다. 이 교회에서 순례자들은 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수밖 형상보다 생생한 것은 '베드로 부인 동상' 밑에 써있
는 그 말 한 마디다. "난 그를 모른
다 Non novi illum"... 마음과 달리
어느새 부인과 저주까지 해버린
베드로의 그 두려움과 슬픔과 충
격... 실존주의자들처럼 배반과 부
인은 좀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 좀
나을 것인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
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 10: 33) 하신 그 엄중한 말씀을 베드로가 통곡하며 흘린 눈물과 함께 이 마음에 새겨본다. “다시는 배반하지 않으리… 죽어도 배반하지 않으리…”

예루살렘지역 (3)

화요일 아침이다. 비가 오지만 종래엔 그칠 것을 기도하며 기브온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사무엘산으로 향했다. 이번 예루살렘 지역(3)에서는 (2)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곳들을 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단계인 베들레헨탄생교회부터 시작한 성지 순례는 어느덧 가장 클라이막스인 갈보리산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한 신 감각산 승천기념교회를 향한다. 그녀는 동안에 벳바게, 주기도문교회,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셨던 눈물교회, 겟세마네 동산, 비아돌로로사(Via Dolorosa), 베테스다, 성묘교회, 유대인 지역과 시온산의 마가의 다락방을 보게 될 것이다.

E-12. 사무엘 무덤 (Nabi Samuel 혹은 The Tomb of the Prophet Samuel, National Park)

라마에 있던 것(삼상25:1)이 옮겨져 이곳 기브온으로 왔다고 하나 진짜 무덤은 아니라고 한다. 예루살렘 북쪽 세겜 가는 길에 위치한 이곳은 현재 회교사원이지만 지하에 가면 유대인 회당으로 무려 천여점의 사물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 관이 아주 작은 방에 검은 비닐에 싸여있어(역시 길게 반만) 조금 섰참하지만 히브리어로 '사물류'라 하여 쓰여져 있어 그나마 역사적 체험이라는 안위를 가질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솔로몬이 일천번 제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로 된 제단들과 유적들이 많았고 그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골짜기가 기브온.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사 10: 12-13)라고 외친 예로수아의 절대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E-13. 전망산(히브리대학교)

히브리대학교는 4개의 캠퍼스를 가진 이스라엘의 국립대학교이다. 1925년 유대광야가 내려다보이고 사해와 그 넘어 요르단까지 보이는 이곳 전망산(Mt. Scopus)에 개교한 후 1948년 요르단 영토내의 이스라엘 비무장지대가 되자 기바

트람 쪽으로 이전해 갔다가 1967년 6월 전쟁 때 다시 탈환한 후 양쪽 캠퍼스를 다 쓰게 되면서 아랍 학생들도 받게 됐다.

선배 아인슈타인의 동상을 만들
어 수많은 도내이생을 받으며 후
진을 양성하는 이 학교는 공과대
학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
계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 공부
하고 오늘날엔 세계 각처에서 유
학을 오며 히브리어만을 위한
e-teacher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초에는 키보즈 형태의 농과대
학이 있다.

E-14. 다윗의 무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에 가기 전, 다윗의 무덤에 들렀다. 정작 무덤자리는 다



윗 성 서쪽에 있는데 웬일인지 3평 남짓한 이곳에 석관이 검붉은 천에 싸여있어서 반은 남성 칸에, 반은 여성 칸에 있다. 즉 방에 관을 놓고 관만 남겨놓은 채 관의 세로로 길게 반에 해당되는 곳에서부터 벽을 쌓아 양쪽으로 방을 만든 것이다. 이곳에서는 남성에게만 누구나 키포를 빌려줬다.

다윗이 관을 쓰고 임금의 복장을 하고 리라를 띠는 동상이 있다. 호기심에 붉은 휘장이 드리워진 것을 떠들어보니 큰 장롱같이 생긴 나무 박스에 장식과 조각으로 새겨진 나무문이 있는데 그것을 열면 두루마리 토라 박스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받았다. 영화 '나니아연대기'에 나오는 다라방 문 같았는데, 가끔은 랍비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고 도네이션을 요구한다든가 들었다.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아침예배: 오전 9:00
 3부 아침예배: 오전 11:00
 4부 아침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466-1234, Fax: (21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10: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가족)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5:00

Tel: (213)384-7274, Fax: (213)384-6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3:00

www.gccj.org, Fax: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6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6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dRock@gmail.com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일 1부예배: 오전 9:00
 영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훈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www.gccj.org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 (323)413-4451, Fax: (323)413-4451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662)969-9600 / Fax: (662)969-8044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9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운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영양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영양예배: 오후 8:0





선교 펴기

멕시코 칸쿤

2013년 멕시코 상반기 사역보고서
2013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상반기 사역을 정리하다 보니 아동들과 참으로 많은 활동으로 상반기기를 보냈습니다.
초반기 어수선했던 학습 분위기는 이제 제법 안정되었고 교사들과의 친밀감도 높아져 자신들과 가족의 문제들을 상담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의 발전적인 모습들은 동역자님들의 사랑 어린 관심과 기도 덕택이기에 후원해 주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상반기 활동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1. 주요 활동 프로그램

교육적 영역

방과후 교실: 학습에 취미를 갖게 하고 학 교성적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는 CDP 전체 아동이 살롱교회에 모여 가치관 교육, 영어, 독서교실, 종이접기, 체육, NIE(신문화용 교육) 활동시간을 갖고 있으며 빈민촌 아동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기타교실, 수요일에는 수 학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들의 학습태도와 학습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답니다.

정기교사모임: 매주 토요일 CDP프로그램 종료 후 모임을 갖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교육이전에 복음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함께 인식하고 중보기도를 한답니다.

달란트시장: 출석, 성경암송, 숙제, 학습태도 등이 좋은 아동들에게 상으로 스티커를 주었는데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달란트시장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신체적 영역

건강검진: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무료급식: 빈민촌아동들은 하루에 두끼 식사를 합니다.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영양급식은 아동들의 신체, 지적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 마약 중독 예방교육: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청소년들의 성,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특히 방학 중에 자신을 성, 마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충제 지원: 모든 아동들에게 구충제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체조: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국 초등학교 국민체조로 체조를 하며 몸을 풀어가지요.

영적 영역

성경캠프: 중, 고등학생, 교사들이 3박4일간 크리스천 청소년 성경캠프에 참석해서 1

일 3회 집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에 도전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룹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감사한 것은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 회개하며 가족의 사랑을 배우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살롱교회와 켄세마네교회, 아동센터에서의 성경학교를 진행하여 아동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답니다.

성경책 지원: 미국교회에서 보내준 성경과 CDP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준 성경으로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이성경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영화상영: 영화 "예수"를 살롱교회에서 상영을 했는데 아동들이 전혀 동요없이 관람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상반기 가정방문은 아동의 학교생활, 가정에서의 아동 체벌 방법, 식사 횟수 등의 설문지를 만들어 전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CDP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



정에서 변화되었다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더군요.

교사세미나: 5-15세 아동들의 연령별 지적, 신체적, 사회적, 감성적, 영적 발달 특성을 인지하고 연령에 맞는 크리스천교육방법을 전문강사를 통해 교사세미나를 시행했는데 교사들의 아동교육방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

CDP DAY(DIA DE PDI): 금년 DIA DE PDI(CDP DAY)에는 특별히 재능 경연대회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는 정신을 배우며 대회 참가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풍: 칸쿤 시내에 유일한 시립공원으로 소풍을 계획했는데 별때들이 너무 많아 아동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곽 수영장으로 소풍을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수영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 특별 수영교실을 계획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일파티: 매월 마지막 주에 생일인 친구들과 교사, 봉사자들을 축하하고 선물을 전합니다.

감사편지쓰기: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부족한 현지인들이어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진 감사편지를 쓰고 직접 전하도록 했습니다.

졸업축하 행사: 유치원 5명,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8명의 졸업을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수생 표창: 유치원, 초등학교 3그룹, 중학생 중에서 각 반별 한 학년 동안 모범학생을 표창했습니다.

지역사회 영역

마을정소: 살롱교회 주변과 공원, 4월10일 빈민촌마을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가 자원인 것을 배웠습니다.

학부모 모임: 가족들의 건강과 위생교육,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었는데 대다수 부모들이 자녀교육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 지속적으로 부모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아동생활 환경 개선: 밤에 비가 오면 잠에서 깨어 구석에 온 가족이 서서 밤을 지새운답니다. 지붕이 많이 새는 4가정의 지붕을 단기선교팀들이 알미늄 지붕재료로 대체해주었습니다.

아동지역 환경 개선: 정부에서 도로 성토작업 후 마무리를 해주지 않아 도로가 매우 위험하여 흙을 사서 완만한 도로로 만들어 주민들의 이용이 안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건축: 빈민촌 아동센터가 너무 협소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교실이 필요했는데 공부방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및 자원봉사자 위로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사 및 봉사자들의 위로회와 감사의 시간을 WATER PARK에서 가졌는데 모두들 어린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ZUMBA교실: 요즘 멕시코에는 에어로빅과 댄스를 합한 쏘바 운동이 전 지역에서 한창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매주 2회 ZUMBA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의 미래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CDP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구호가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 꿈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사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아동들 모두가 멕시코의 미래가 됨을 확신합니다.

CDP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이들의 현실안에 들어와 보니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방해.... 그동안의 교육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기도하며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문제아동들을 데리고 타이르던 봉사자가 이제는 문제아동들을 데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자기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복음과 기도 그리고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CDP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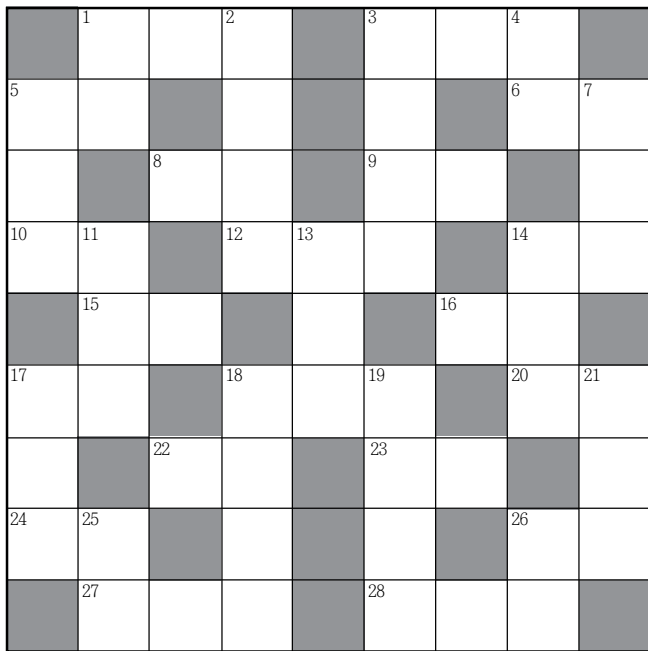
우리 아동들이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 각 가정과 사회,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민주식 선교사 드림

▲이메일: 3374min@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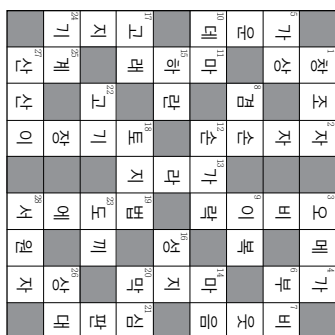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잠 8:30).
3. 나는 알파와 ○○○요(계 22:13).
5. 착하게 여기어 칭찬함(시 104:34).
6. 일에 드는 비용(눅10:35).
8.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춤(골 3:12).
9.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름(창20:12).
10. 아라비아 대상 이스마엘의 자손이 거주하는 지방(욥 6:19).
12. 손끝에 달려있는 다섯 개의 짧은가락(눅16:24).
14. 사람의 의식·감정·생각 등 모든 정신작용의 근원이 되는 것(잠14:10).
15. 데라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형(창11:28).
16. 거룩한 땅(렘31:40).
17. 동물 중에서 가장 큼. 이것들이 싸우면 새우 등 터진다(명).
18. 땅에 관한 법률(창47:26).
20. 더할나위 없이 몹시 심하다(시 119:107).
22. 온갖 동물의 살(계19:18).
23.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사10:15).
24. 여러 기관이 서로 어울려, 사람 또는 자연의 힘을 받아 움직이는 틀(느4:23).
26. 서로 마주 대함(마18:15).
27. 여지없이 흩어지거나 깨어진 모양(삼상2:10).
28.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레 27:8).

<세로 푸는 열쇠>

1. 칼날 파위에 다친 상처(렘 30:12).
2. 자손의 여러 대(렘37:25).
3.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사 성어).
4. 옳고 그름. Yes or No(창 24:50).
5. 중간(눅22:55).
7. 비웃는 일, 또는 그 웃음(대하 29:8).
11. 느노바 사람인데 다윗의 30勇士 중 한 사람(삼하23:28).
13. 화본과에 속하는 1년생 풀(마 13:39).
14. 일의 끝판. 최후(요일2:18).
17. 창고를 지키는 사람(스1:8).
18. 토기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롬9:21).
19.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시119:110).
21. 심판하는 자리(고후5:10).
25. 수량을 헤아림(행19:19).
26. 나무나 대 또는 종이 따위로 만든 그릇(삼상6:11).



십자말 정답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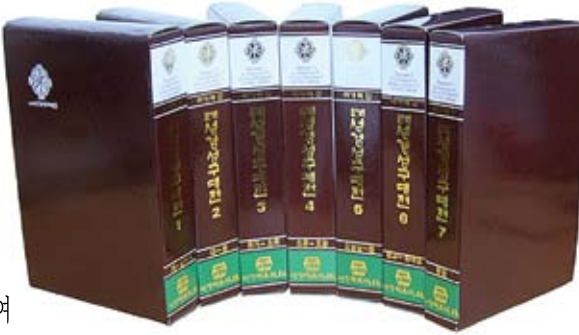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제 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납하스
 - 2권:다~롯
 - 3권:돗가~소위
 - 4권:소위~오솔
 - 5권:오솔~중
 - 6권:중~히타델
 -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9)

5.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오늘의 이야기는 보수적 복음적 신앙과 신학에 입각한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확실히 복음적인 교육이지만 만일 이것이 복음주의적으로 흘러버린다면 이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결과임을 피력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복음적”이라는 단어와 “복음주의적”이라는 단어가 각각 그 의미하는 바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들에서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것이 “복음적”인 것과 동일시되어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지라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 다. 사실 한국말로 “복음적” 그리고 “복음주의적”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는 실제로 한 영어단어인 “evangelical”로 공히 표현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evangelical이란 단어는—물론 때로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양쪽의 의

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교육을 이해하고 행하는 신앙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서도 미국교회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모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주의” 그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복음주의적”이란 것이 “복음적”인 것의 반대를 의미하거나 왜곡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주의는 복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선한 신앙의 표현이 사상과 조류의 형태로 기독교역사 속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주의”가 이해되어온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 이해된 “복음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행하면서 이를 “복음주의적”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은건파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근본주의로 불리게 되었고 후자는 신복음주의로 불리다가 나중에 그냥 복음주의로 칭해져왔습니다. 이에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 잘 이해된 복음주의라는 것은 바로 18세기 이후 대각성 운동을 통해 두드러지게 그 의미를 발현한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사조로서 회심, 구원, 성경, 전도 및 선교, 그리고 사회 정의 등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근본주의와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할 신학적 조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된 복음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복음주의적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복음적인 교육의 좋은 실례가 되며, 복음적 교육의 “왜곡”이라거나 그 의미의 “퇴색”이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와 그 영향을 받은 한인교회가 종종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를 “복음주의”로 잘못 이해하거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복음주의’ 잘못 이해...복음적 주의나 근본주의와 엄격한 차이 있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 이해하고 행하는 “복음적” 교육해야

미로 혼용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앞서 “복음적”은 “Evangelical/Evangelistic”로 그리고 “복음주의적”은 “Evangelicalist”로 다르게 표현). 하지만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영어표현도 “복음적”은 “of gospel(euangelion)”이고 “복음주의적”은 “of Evangelicalism”로서 양자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는 복음과 복음주의가 확연히 다른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고 후자는 인간들에게서 나온 인간 지식의 창조물입니다. 양자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과 후자가 아닌 전자가 우리 한인교회 교육의 모습이며 지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주의적으로 흐르는 경우들을 반성하고 또한 재발을 방지하려는 우리 노력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적”이란 말 그대로 “복음에 입각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복음적”이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복음)에 입각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천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행하는”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에 복음적 교육이라 함은 성경에 근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의 실체를 모른 채 “복음주의적”이라는 이름을 걸고 교육을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주의적 교육은 복음적인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퇴색시켜 왔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한인교회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 이해된 복음주의”는 무엇이며 “잘못 이해된” 복음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된 복음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사상사적으로 엄밀하게 본다면 복음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 전체를 칭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강세를 띠면서 자유주의신학이 등장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개신교 복음주의의 정신을 이어 나가려는 신학자들이 생기면서 이를 또한 복음주의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조는 18세기 이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개혁주의자들(Reformed Theologians and Ministers)에 의해 일어난 대각성 운동을 통해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복음주의를 16세기 전체 개신교회를 칭하던 개혁주의적 정통 복음주의와 구별해 학술적으로는 신복음주의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조류는 이후 다시 급진파와

나 양자를 혼동하는 우를 범해왔는데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본주의적인 것을 복음주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복음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급기야 근본주의적인 것을 복음적인 것으로 오해하며 이를 그 교육에까지 적용시켜 오는 오류를 왕왕 범해오고 있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총차원감섭에 기반하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급진적이며 일회적인 회심과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신학적 조류입니다. 이는 복음주의와는 다르게 성경의 무한한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제한하고,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약점들을 노출하여 지성적 대화와 학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진정한 회심과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켜 전도와 선교조차 억압적인 행태를 띠기도 하며, 또한 사회의 문제들에 무관심하고 사회참여가 마저 복음의 반대편상에 있는 것인 양 이해하는 사조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복음적 교육은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더욱 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여 참된 “복음적” 정확하고 진실한 의미의 복음주의적”인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고 점검하여 그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불의 응답(대하7:1-22)찬173장

성전건축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곳에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불의 응답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때 일제히 경배함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3).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배를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께 스스

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이한 치료가 일어납니다(14).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성품을 체득케 했습니다. 백성들의 사명은 선과 인자의 맛을 누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3).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찬양 화복의 길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13-14). 불같은 성령을 갈망하여 풍성한 사역을 이룹니다(눅11:3).

화 첫사랑의 열심(대하8:1-18)찬411장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였습니다. 첫째, 거룩을 쫓는 열심을 행하게 하고 레위인으로 찬송과 제사를 다했기에 거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범개 있는 곳을 거룩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그 표준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변치 않았음을 알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 예배에 열심이었습니

다. 이스라엘 중심이 예배에 있음을 확신한 솔로몬은 번제를 드릴 때(12) 안식일, 월삭, 정한 절기를 철저히 지키며(13), 제사장들의 반찬을 정해 직분을 행하게 하고 레위인으로 찬송과 제사를 돕게 하고(14) 그리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예배 중심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합니다.

수 솔로몬보다 나은 영광(대하9:1-12)찬78장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듣고 방문하는 시바여왕과 히람 왕의 방문을 보인 본문은 하나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유일한 해답자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천국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둘째,

풍성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바여왕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보다 더 탁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지혜 자체이십니다(마13:42).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있습니다(골2:3). 셋째,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물을 받은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는 성도가 드리는 헌신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몸의 산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항상 기쁘시게 합시다(롬12:1-2).

목 솔로몬이 받은 복(대하9:13-31)찬307장

본문은 성전건축 후 솔로몬이 받은 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받은 복을 알게 하며 누리는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첫째, 그것은 언약의 복입니다. 창1:27-28 복은 솔로몬 때 또다시 확인됩니다. 그는 재물이 넘쳤고 유브라데스에서 애굽까지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영화로운 복 곧 그 복의 실제인 성령을 받았습니 다(엡1:3). 둘째, 지혜의 복입니다. 풍성한 영적지혜를 받았습니 다.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신자는 그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유복자입니다(골2:3). 셋째, 어떻게 누렸나요? 여호와 경외신앙으로 그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 경외신앙을 떠날 때 그 복은 저주로 바꾸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노란 자위의 복인 복음을 나눠주는 꿈을 품시다.

금 스스로 겸비하면(대하12:1-16)찬486장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첫째, 르호보암의 교만은 하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여호와와의 율법을 떠나(1) 스스로 강성케 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함은 매우 위험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자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

막은 멸망과 사망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의 겸손함으로 난국을 타개했습니다. 방백들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 겸비 한(6) 그에게 하나님의 공로가 임하여 시삭의 공격을 막게 했습니다(9). 겸손한 자에게 은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온갖 혼란 속에서도 겸손을 지킬 때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의 근원,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아가합시다(딤후6:3-4).

토 이기는 방법(대하13:1-22)찬428장

구속사의 한 작은 사건을 통해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첫째,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16). 40만이 80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 다.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깁니다(18).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하시는 간단한 원리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이것이 믿음입

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다투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12).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면 이깁니다(21).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시고 불을 당겨지고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수록 더욱 회개의 자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 앞에 놓인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어 항상 승리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장합시다(엡6:10-18).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목실) VIA DEI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구 서초2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31)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9419, Fax, (062)522-4834 500-170 영광광역시 북구 금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목실) VIA DEI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매일 (2)토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56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 오후 2:30 (절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신길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58-9988, Fax, 38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서교동 14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3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동 415 www.yang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주일 12: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상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동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일) 금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전 8:00(토, 일)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a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R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호주기도회: 아침 7:40 우. 초. 중. 고등학생: 주일 12:00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E-mail: hanngo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인/터/뷰 이병희, 원영호, 박호후, 임준규 목사

“교도소 사역은 갈급한 영혼 찾는 절호의 기회”

“교도소 사역은 갈급한 영혼을 찾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동참할 젊은 목회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셰리프 디파트먼트 내 감옥(Jail)에는 총 12명의 시니어 채플린이 사역하고 있다. 12명중 7명은 가톨릭신부, 그리고 5명은 기독교 목사다. 이 5명의 시니어 채플린 중 한명인 이병희 목사를 비롯 원영호 목사, 박호후 목사, 그리고 임준규 목사 등 4명은 교도소 사역 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역이라 강조하며 많은 젊은 목회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도소 사역은 주로 재소자들 교화를 위한 설교, 성경공부, 그리고 카운슬링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한인재소자의 경우 가정방문을 하기도 한다.

이병희 목사는 “미국 내 감옥은 장기수가 복역하는 교도소와 경범죄 등으로 짧게 형을 살게 되는 구치소로 개념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제일(Jail) 즉 구치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잘못으로 들어온 죄수들로 아직 유죄나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단지 병행헌장에 있거나 가정폭력이나 경범죄 등으로 체포돼 들어온 자들이지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갈급한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큼니다. 이 갈급한 마음을 상담과 기도 등으로 어루만져주게 될 때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이 임하게 되거든요”라고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교도소 선교사역을 하는 이들에 대해 교회들 비롯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교도소의 모든 곳에 자유로이 출입해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감옥사역은 교도소 안 사역과 바깥 사역으로 나뉜다. 즉 채플린이지만 교도소 바깥 사역은 재소자들과 면회를 하는 것까지 허용이 되는 클러지(clergy)들과 교도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채플린이 있다. 흔히 교회행사나 선교대회 등에서 만나게 되는 채플린들은 클러지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반면 면회 장소뿐만 아니라 교도소 안까지 들어가 사역을 하는 채플린은 4개의 직급으로 나누어진다. 처음 채플린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면 에스콰드로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왼쪽부터 박호후 목사, 이병희 목사, 원영호 목사, 임준규 목사)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2년 정도의 사역기간이 지나게 되면 에스콰드로 교도관의 입회 없이도 감옥 안에 들어가 사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사역기간이 채워지게 되면 어시스턴트 채플린으로, 그리고 시니어 채플린까지 활동할 수 있다. 시니어 채플린이 되려면 채플린경력 20년 이상 돼야 한다.

어시스턴트 채플린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영호 목사는 “감옥사역을 접하기 전에는 클러지들이 교도소사역을 전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역에 뛰어들어보니 다양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

“아무래도 LA카운티의 채플린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을 하는 발런티어들입니다. 카운티 정책상 채플린들에게 사례비가 책정돼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하기에 교회사역을 하고 있어야 채플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LA카운티 내에 감옥(Jail)은 8개가 있다. LA 시내에 3개, 웨이사이드에 4개, 팜데일 쪽에 1개 등 이병희 목사는 교도소 사역에서의 애로점은 재소자들과 충분히 만날 기회가 적다는 것을 꼽았다.

“감옥은 교도소(Prison)와 구치

슬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만난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소자 중 갇힌두목이 변화되면 그것으로 인해 그 갇힌이 모두 변화될 수 있다. 갇힌의 세상은 조직사회이고 리더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호후 목사는 감옥사역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역이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히 감옥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중 메모지, 연필, 지우개 등 오피스용품과 성경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 주류사회에서 지금까지 100% 지원해왔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증가로 인해 20%정도 부족하는데 이 부분을 한인교회를 비롯 한인커뮤니티가 담당했으면 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병희 목사는 미국교도소 내 면회가 이뤄지는 비율은 20%정도라고 밝혔다. 즉 80%의 재소자들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고독과 외로움의 극치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며 자살을 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삶의 의욕과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과 같은 채플린들의 사역이라는 것.

범죄자라도 감옥에선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려 복음으로 삶의 의미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

을 알게 됐습니다. 감옥사역이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만 간혹 클러지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 시니어채플린을 사칭하거나 교도소 안까지 들어가 사역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박호후 목사는 “LA카운티에서 지정한 시니어채플린은 이병희 목사님 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 사칭하다 적발이 돼 징계가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도소사역이 특수사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금활동도 겸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니어채플린이라고 소개하면 보다 효율적인 모금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병희 목사는 채플린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례비를 받는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Jail)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치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재소자들이 주로 경범죄로 들어온 자들이라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달 내외이며 보통 3-4주간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감방하나에 1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수용되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없게 되고, 더군다나 저희와 만나기도 전에 판결이 내려져 석방되거나 시교도소(State Prison)로 이송이 되기도 하니까요”라고 설명하는 이 목사는 미국의 교도소에 소감된 재소자는 300만명 가량이 있으며 교도소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도소 부족현상으로 구치소가 교도소와 병행 운영돼 일부 장기수들이 구치소에 수감돼있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준규 목사는 “성경공부와 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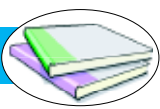
“감옥 안에는 그 어떠한 중죄인들도 나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비록 그 안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혐악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감옥선교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병희 목사를 비롯 4명의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채플린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며 그 이유는 현재 사역중인 채플린들의 연령이 고령화가 돼가기에 감옥선교에 비전을 가진 젊은 목회자들이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해 음지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으로 삶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이병희 목사 (213)880-2998, byungheelee@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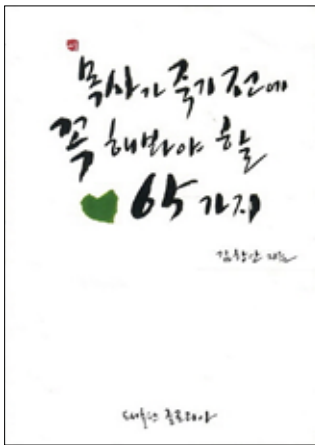
(박준호 기자)

새 책 소개



“목사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65가지”

저자 김항안 목사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김항안 목사가 ‘목사가 죽기 전에 꼭 해 봐야 할 65가지’(도서출판 글로리아/471쪽)를 출간했다.

책 서두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목사. 목사가 되는 것은 운명과 같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일에 파트너가 된다는 것만큼 설레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운명’이다. 하나님은 이 운명적인 삶을 살 장본인으로 불러 목사가 되게 하였고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목사를 인도하는 분”이라며 ‘목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소중한 직분을 받은 목사들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한다며 “목사는 세상에서

도와 선교지 순례, 성지순례들을 통해 사역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확실히 세우고 나만의 목회 브랜드를 갖추라고 말하며 목회를 통해 동역자들과 성도, 교회와의 기쁜 관계가 돼

하나님의 파트너로 설레는 목사...기쁨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구원의 기쁨 소식을 추상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자기 소명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본서는 제 1장 ‘하나님의 기쁨을 품은 목사’, 제 2장 ‘예수님의 기쁨에 속한 목사’, 제 3장 ‘성령님의 기쁨에 잡힌 목사’, 제 4장 ‘교회와 기쁨을 나누는 목사’, 제 5장 ‘믿음의 기쁨을 전하는 목사’, 제 6장 ‘인생의 기쁨을 새기는 목사’, 제 7장 ‘성령의 기쁨을 즐기는 목사’로 구성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확보하라. 하루에 2-3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성경 백독을 해보라, 성경 66권중 최소 한권의 주언급이 되라’ 등 9개의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2장 첫머리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자신에게 물어 보라’는 제목으로 늘 새롭게 소명을 깨닫는 목사가 될 것과 전

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5장-7장을 통해 ‘믿음의 기쁨, 인생의 기쁨,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덕목 27가지를 제시하며 ‘목회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항안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뮌헨대학, 베를린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강남대학, 총신대학, 서울신대에서 강의, 아세아신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한국교회정보센터를 통해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매년 발행되는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를 비롯한 ‘기독교윤리의 원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영혼의 대화’, ‘영혼과 영혼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양식’, ‘사순절 주님과 함께’,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등 50여권의 저서가 있다.

www.kcdc.net 에서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책 구입처: 미주 내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Better World, Better Life, Better You!

베데스다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베데스다 대학교는 ... 1976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복음화와 인류봉사를 주축해 나갈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며 세계를 향해 경쟁력있고 국제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교육 인가기관 CHEA 산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은 정회원대학으로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도 발행하고 FAFSA를 통한 연방 정부 학비 보조 및 용자가 가능하며, 기독교 대학 체육 협회 NCCAA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축구부(남/여), 야구부 등 체육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학점취득이 가능하므로 전세계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및 세부전공

신학학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실천, 교육합니다

풍부한 사역 경험과 복음주의, 오순절 영성에 투철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신학학부는 목회학, 성서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전공이있으며 목회학, 성서신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학

복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감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

유아교육 교사, 원장 자격증 과정과 함께 4년제 학사학위(B.A)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 유아교육 사역자를 배출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 경험이 없어도 열정과 꿈만 있다면!

다양한 디자인 클래스로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을 살펴보세요. 졸업후에는 아트 디렉터, 광고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시각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여러 기업체에서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음악학부

음악적 재능과 학문 탐구를 통한 손색 없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역량있는 교수진을 통해 강도 높은 레슨으로 클래식, 실용음악, 찬양사역 등 다양하게 세부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다양한 취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영학과

경영학과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보십시오!!

현대적인 경영관리의 기법, 실무능력과 실질적인 경영지식을 습득 함으로서 비즈니스, 상업, 정부 그리고 기술적인 각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IT학과

미래가 밝은 IT학과는 기술 전문가 배양을 목표로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등의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졸업전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ll Free 1.800.960.4583

Fax: 1.800.960.4584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admission@buc.edu

